

참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누가

-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미가 7:18-19, 누가복음 19:10

정윤돈 목사님

- * **미7:18-1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 * **눅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한 주간 마음 아프고 갈등하고 힘든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고 고백했다. 고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결국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신다. 당시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감사한 것 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시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바라볼 분도 하나님 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란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입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키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 가운데 확신할 때 내가 있는 현장을 먼저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고백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탄문제, 저주와 재앙문제, 죄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용서하셔도 용서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미가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다.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 음욕을 품어도 간음,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이라고 했다. 행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신 그리스도

께서 오셨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법적으로 용서함을 얻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와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도 용서했다. 우리가 큰 용서함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세 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아직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현장에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분들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은 기간과 관계없이 전도한다. 아손은 3주만 말씀 받았지만 목숨 걸고 전도했다.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성숙하게 겸손하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빨리 성숙되어서 믿음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시기 바란다. 다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다. 성경은 이야기 책, 역사적인 맥락의 책, 복음 책으로 봐야 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성령의 깨달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항상 성경을 읽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읽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메시지하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다. 이 성경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갈보리산의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었고 감람산의 승천으로 재림, 심판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마가디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다. 성령을 통해 함께하시며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저도 개척교회 때는 모든 성도를 항상 돌봤는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생기니까 조금씩 성도들과 멀어지더라. 가족도 여러분을 다 돌볼 수 없다.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일일이 함께하시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고 헌신하고 동참하며 세계복음화를 해야 한다.

초기 교부들이었던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유세비우스 등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들인 초대교회 교부들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라고 말한다. ‘누가’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빛’ 또는 ‘광명’이라는 뜻이다. 누가는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TCK였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다. 사도 행전에는 전도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발한 복음의 빛은 어마어마한 역사다. 여러분은 빛을 발하고 있을까.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보다 더 이전 자료라고 한다.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고백했다. 사실 밥 굶지 않는 시대가 얼마 안 됐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주기도문을 하는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산다.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더욱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깊이있는 주기도문이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든 사람의 눈에는 독기가 서려있다. 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할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말씀과 믿음과 무기가 없으면 노예가 되고 진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 10대 때는 별 일 아니어도 늘 웃지만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얼굴이 굳는다. 램뎀트 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쓰기 시작한 게 27살이다. 그 기독교강요가 5백 년 동안 장로회 모든 신학을 만들어냈다. 그년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어린 나이가 아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란다.

1.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참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기록한 게 아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했다. 예수님이 승천한 직후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수백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제자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누기는 후대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누기복음을 썼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신화적인 사건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기는 누기복음을 기록하며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왜 신이 사람으로 왔는지,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 설명했다.

(2) 예수님도 배고픔과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셨다. 아마도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배고픔이고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이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굶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 우리가 사업을 망하고 돈이 없고 집이 없는 것, 사탄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모델로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다. 시험 들 때 말씀이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결론 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연약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신다.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사탄의 역사도 이해하신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3)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직접 함께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셨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다. 누기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세계에는 병들고 마약하고 이상숭배하고 귀신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치유하고 돕는 게 선교이고 전도다. 세계복음화를 실천할 시간표다. 여러분이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고 도우면서 동역자, 후원자가 되셔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4)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다. 사람들은 다 뒤통수 때린다.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한 사람들이 배신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 보라. 왜 주님만 바라봐야 할까? 배신당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을 때 잇을 수 있다. 100억 있는 사람이 1억 사기 당하는 건 잇을 수 있다. 그러나 1억 있는 사람이 1억 사기 당하면 죽고 싶다. 응답을 받아야 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배신당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힘을 얻어 이러한 상황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아닌 응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나누겠다. 주만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살려야 한다. 사회가 어지럽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한국교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5)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어린 양과 같이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이다.

(6)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성육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7)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2. 누기와 누기복음에 담긴 중요한 복음요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참 전도자 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기는 유일한 이방인 TCK전도자였다. 언어와 문화도 달라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견과 외로움을 이겨 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었다. 누기는 다른 복음서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누기복음을 완성한 제자였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왜 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하지 마시고 항상 인도따라 빈 곳을 채우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누기는 치유의 사명자였다. 육신적인 치유 뿐 아니라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도 했고 전도캠프와 선교의 현장도 치유한 참된 램넌트선교사였다. 누기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도 부족한 전도현장을 치유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메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기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또한 누기와 같이 전도캠프의 현장에서 전도의 부족한 부분과 빈 곳을 찾아주는 치유사명자가 되어야 하겠다.

(3) 누기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4) 다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앗수르 시대에 이방인들과 혼합된 민족으로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누가 그의 친구인지 말씀하신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돕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할까? 진정한 전도는 구원의 길을 전하며 구원받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돌보는 것이다. 천주교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잘한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믿음의 분량,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5) 또한 누기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고침받은 문둥병자 열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중에서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었다. 예수님은 열 명 중 한 사람만 돌아올 것을 이미 아셨다. 저 같으면 안 고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조건부로 돕지 말 것을 보여주신다.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떠나갔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6) 누기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말씀이다. 이 비유의 말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며 살아있을 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부자로 풍요롭게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래서 누기는 바울과 함께 노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았다.

끝으로 전도자 누기처럼 복음중심, 말씀중심, 땅끝중심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누기복음과 사도행전과 같은 영원한 복음의 작품과 삶을 남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누기의 삶과 누기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늘과 땅처럼 큰데, 성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 삶으로 실천하여 세계복음화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